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 공식 즉위… ‘화합·단결’ 강조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서 즉위 미사
200개국 정상·종교지도자 등 참석
“빈자 소외시키는 경제체제 상쳐”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가 18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즉위 미사를 집전하며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끄는 교황직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렸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가톨릭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 봉사하며 전 세계의 화합을 이끄는 하나 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지붕 없는 하얀색 전용 의전차량 ‘포프모빌’에 오른 채 성 베드로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교황은 광장을 돌며 “교황 만세”(Viva il Papa)를 외치며 환호하는 신자들에게 미소 지으며 손 들어 인사했고, 신자들이 들어올린 아기들의 이마에 입 맞추며 축복하기도 했다.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입장한 교황은 오전 10시께 대성전 지하에 안장된 초대 교황 성 베드로의 무덤에 참배했다. 이후 가톨릭 성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성인 호칭기도’와 고대 찬가인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다’(Laudes Regiae)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추기경들과 함께 대성전 내부에서 성 베드로 광장으로 행진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전 10시 15분께 광장에 설치된 제대에 올라 라틴어로 “형제자매여, 주님께서 만드신 이날에 우리는 이 물의 표징을 통해 우리 세례의 기억을 새로이 합니다”고 기도하며 미사를 시작했다.

미사 도중 어깨에 걸치는 고리 모양의 흰색 양털 띠 팔리움과 교황의 사도적 임무를 상징하는 ‘아버의 반지’를 착용했다. 교황권의 상징물들

착용함으로써 교황으로서의 직무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의식으로, 이때 레오 14세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한 표정이었다.

팔리움은 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뜻하며 아버의 반지는 베드로처럼 교회의 일치를 수호하고 신앙을 지키는 교황의 사명을 드러낸다.

콘클라베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필리핀) 추기경이 레오 14세의 손에 반지를 끼웠고 팔리움은 마리오 제나리(이탈리아) 추기경이 걸어줬다.

이어 예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명의 대표단이 교황 앞으로 나아가 복종을 맹세했다. 추기경 3명과 주교 1명, 사제 1명, 부제 1명, 두 수도회 총원장(남녀 각각 1명), 한 쌍의 부부, 한 소년과 한 소녀 등 모든 교회 구성원이 대표단으로 선발됐다.

레오 14세는 이날 개혁파였던 전임 프란치스코보다 가톨릭교회의 전통적 신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탈리아어 강론을 통해 자신을 교황으로 선출한 추기경들이 기독 신앙의 풍부한 유산을 보존할 능력이 있는 목자를 찾아 나섰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환경을 위험하고 빈부격차를 만드는 경제 체제를 경계하고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그리고 자신이 이름을 딴 레오 13세 교황과 같이 사회 정의의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레오 14세는 “오늘날 우리는 증오와 폭력, 편견, 차이에 대한 두려움, 지구 자원을 착취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는 경제 패러다임이 빚어낸 너무 많은 불화와 상처를 여전히 목도한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보다 세계의 화합, 그리고 이를 위한 교회의 단결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레오 14세는 “다른 이들을 종교적 선전이나 힘의 수단으로 끌어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예수께서 하셨 오직 사랑의 문제”라며 “가장 첫째 소망은 단결과 친화의 상징인 통합



레오 14세 교황이 18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즉위 미사에서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의 도움으로 손에 ‘아버의 반지’를 끼고 있다.

연합뉴스

된 교회로, 화해를 이룬 세계를 위한 누룩이 되는 것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역사와 모든 민족의 사회, 종교적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단결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즉위 미사에는 전 세계 200여개국 정부 대표, 종파를 초월한 여러 종교 지도자가 참석했다.

외국 정상으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

럽연합(EU) 집행위원장,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교황의 출신국 미국에선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했고 교황이 시민권을 보유한 페루의 디나 불루아르테 대통령도 자리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밴스 부통령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백악관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목소리 높여 전쟁을 벌인 바 있다.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부부와 필립 벨기에 국왕 부부, 에드워드 영국왕자(찰스 3세 국왕의 동생) 등 외국 왕족도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사절단이 참석했다. 종교 지도자로는 염수정 추기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 등이 함께했다.

연합뉴스

유럽 4개국 정상들, 트럼프와 통화

우크라 휴전·대러 제재 논의
“푸틴에 인내심 잃어”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담판’을 앞두고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킵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진행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무조건적 휴전의 필요성과 러시아가 휴전 및 평화 회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추가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정상 간 통화는 미국과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를 향해 30일간의 무조건적 휴전을 받아

들이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푸틴 대통령,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순차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일,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지지하는 30일간의 무조건적 휴전을 받아들임으로써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통화를 했던 알렉산드레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시간끌기’에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지만, 올바른 방향, 러시아를 향한 방향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퇴임 4개월만 전립선암 진단… “뼈까지 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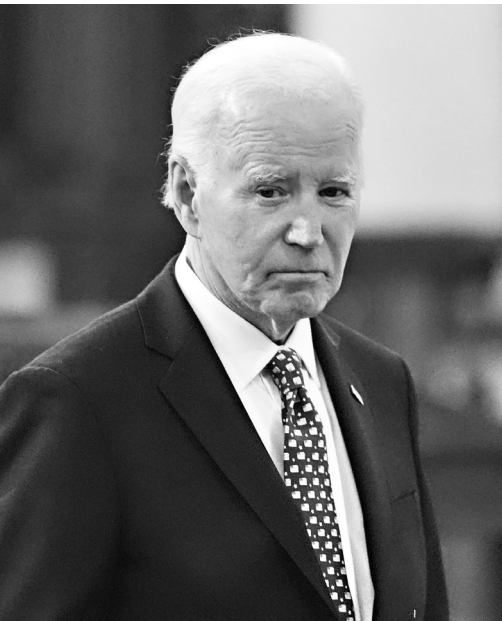
악성도 판단 지표 10점 중 9점

조 바이든(82)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뼈로 전이가 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대변인이 낸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형태’(aggressive form)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배뇨 증상이 악화한 후 전립선 결절이 새로 발견돼 진료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6일 ‘글리슨 점수’(Gleason score) 9점(등급 그룹 5)으로 특징되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측은 “이는 좀 더 공격적(aggressive)인 형태임을 나타내지만, 해당 암이 호르몬에 민감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하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가족들은 주치의와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립선암의 악성도는 통상 글리슨 점수로 나타내는데 점수가 2-6점이면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 글리슨 점수가 7-10점이고 전립선 특이항원(PSA) 혈중 수치가 20 이상이면 예후가 나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바이든 측은 앞서 지난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으며 ‘추가 평가’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미국 남성 100명 중 13명이 일생 중 진단받을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암에 속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인 82세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의구심은 재임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녔고, 지난해 6월 대선 토론 이후 유권자들의 그의 인지 능력에 대한 논란을 키우면서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카말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에게 내주고 두 번째 임기 도전을 포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하마스 해체·인질 석방’ 이, 지상작전 돌입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해체하고 생존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개시했다.

이는 항전 중인 하마스에 납치한 인질을 석방하는 휴전 협상에 동의하거나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확대에 맞서 싸우라는 최후통첩 성격으로 보인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하루 동안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한 남부사령부 예하 병력이 ‘기드온의 전자 작전’의 일환으로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 전역에서 광범위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테러 기반 시설을 해체했으며 현재 주요 위치에 배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북부의 베이트 라히아와 자발리아 난민 캠프와 남부 도시 칸 유니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최후의 경고’라고 언급한 대피명령에서 “로켓 발사에 사용되는 모든 지역에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 민방위대 대변인 마흐무드 바살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계속된 공습으로 남부 알마와시 난민캠프에서 22명이 사망하는 등 최소 50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도쿄 대형빌딩 장기공실 3년만 12배 ↑

닛케이 “재개발로 공급량 증가”

일본 도쿄 중심부에 있는 대형 빌딩의 공실면적이 3년 만에 12배로 급증했다고 니혼게이지(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부동산 조사·연구 기관인 자이맥스소켄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쿄 도심인 23구 지역의 사무실 임대동향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다. 신문은 1년 이상 공실률이 20%를 넘는 건물을 ‘장기 공실 빌딩’으로 규정한 뒤 그중 임대 연면적 1만6,500㎡ 이상인 대형 빌딩의 지난해 평균 장기 공실 면적이 약 18만5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대형 빌딩 장기 공실 면적의 12배를 넘고, 연평균 수치를 알 수 있는 2013년 이후와 비교하면 동일본 대지진 등의 여파가 있던 2013년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다.

닛케이는 2013년 도쿄 23구의 전체 공실률이 7%였으나 지난해는 3%대 전반으로 낮아졌다는 점에 주목해 대형 빌딩의 공실 상황이 심각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대형 빌딩에서 장기 공실이 늘어난 배경에는 재개발에 따른 공급량 증가가 있다”며 도쿄 23구 대형 빌딩의 임대 면적이 올해 연말에 2014년 대비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자이맥스소켄 관계자는 “2010년대는 빌딩을 만들면 바로 임차인이 들어왔다”며 지금은 공급 확대로 일부 지역의 경우 대형 빌딩이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